우리꽃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내용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3·4 우리네 urinet news www.uriseed.com
발행일 : 2005. 3. 1 통권 13호
2005 March/April VOL_13
TEL : 031)634-7990 FAX : 031)634-7991 디자인 및 인쇄 : Bau 02383-1584

후룩스 – 자연

혼합식재 적용기법 7

테마가든 스케치
계절별 주요 품목 가든연출

현재 우수한 조경용 지피식물군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군으로 백합과의 원추리군, 옥잠화군, 나리군, 알리움군 그리고 석죽과의 패랭이군, 꽃고비과의 후룩스군, 붓꽃과의 아이리스군, 이질풀과의 제라니움군, 국화과의 여러 군, 그리고 화본, 사초과의 여러 그라스군, 제비꽃과의 비올라군 또한 품종으로서 큰군을 가진 메발톱군, 모란(목단)군, 작약군, 장미과의 여러군, 앵초군, 연꽃, 수련군, 델피니움군, 양귀비군, 노루오줌군,

다양한 숙근초와 일년초로 혼합식재 되어져 있는 모네정원

펜스테몬군, 니포피아군, 아네모네군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품종군이 있기는 하나 숙근초의 대표군으로 위의 나열된 품목들이 주를 이룬다고 해야 할것이다.

위의 메인 사진은 프랑스에 있는 아이리스의 대표적 정원인 모네정원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주요 품종군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조경용 숙근초의 계절별 테마조경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모네정원의 대표적인 정원테마는 뭐니 해도 독일붓꽃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내방객이 집중된다.

하지만 모네정원의 기본적 테마는 Iris의 화려함만은 아니다. 아이리스가 피는 시기에도 기타 다른 여러가지 식물들이 복합적으로 혼합, 혼성되어져 있고 계절별로 계속해서 바꾸어 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식물원 혹은 공원의 경직된 식물선택이 설계자 혹은 오너의 만족감은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고객 중심의 식물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무조건 우리나라 야생화여야 한다느니, 반드시 다년생이어야 한다느니, 또는 오너의 관념속에 있는 품목을 주변생태, 혹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고, 집중해야 한다느니 하는 경직된 예를 자주 보게 된다.

필자는 이런 경우, 조경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택식물원과 같은 정통의 식물원이 아니라면 품종 수 혹은 품목 수를 늘리기 위해 너무 고집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생태공원의 경우 정통적인 식물원(Botanical Garden :학술조사 연구를 주로 하는 곳으로 식물원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내외 식물을 수집하여 각기 알맞은 장소에 심고 관리한다. 영국의 큐 왕립식물원, 인도의 인도식물원과 같은 국립식물원이나 독일의 베를린 달렘 식물원과 같은 대학부속 식물원 등이 이에 속함)이 아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가치가 더 강조되며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과 생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주기 위한 장소라고 보아야 더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네정원을 살펴보면 상업적인 가든의 형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정원을 조성할 때는 화가인 모네의 개인 정원이었지만 지금은 매우 상업적인 따라서 고객들을 위한 식물정원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리스가 약 3주에 걸쳐 피고 나면 고객들이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면...

자연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다시 가을, 겨울로 순환된다. 이순환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된 식물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변하고 순환하며 우리인간은 이식물들이 자연현상에 의해 변해가는 모습을 즐기는 것이다.

공원이나 정원은 이 식물과 자연이 변해가는 과정을 테마로 조성해 쉽고 의도된 풍경을 즐기기 위한 곳이다.

항상 관리인들은 다음 계절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필자가 많은 군더더기를 붙여가며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사실 한가지 이다.

우리의 조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라는 것이다. 이때 사람이란 이용객, 소비자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경관을 연출해야 한다.

제목으로 "계절별 주요 품목 가든연출"로 제시한 것은 큰 식물군을 계절별, 테마별로 선정하고 주품목과 보조품목의 이해와 혼합, 혼성 식재의 개념을 알아야 좋은 경관으로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이리스를 더욱 아름답고 화려하게 연출시켜 주는 식물로

계절별로 변화를 주기 위해 트레이에 재배되어지는 일년초들

모네정원의 경우 일년생인 꽃무류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련과 수선화, 튤립, 철쭉, 라일락, 등 나무 꽃, 작약, 원추리, 백합, 부처꽃, 양귀비, 장미, 샐비어 등으로 주테마를 잡고 기타 일년초 및 다년초를 적절하고도 다양하게 혼합, 혼성식재를 한다.

때문에 정원의 한켠에는 관리인들이 항상 다음계절을 준비하는 일년초 및 숙근초를 바꾸는 작업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공원이나 골프장, 그리고 정원의 꽃가꾸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경쟁력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까.

Contents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2면
→특별기획-우리꽃 종자은행 3면
→연재-수변 · 수중식물 외 4, 5면
→현장리포트 6면
→현장하트품종 7, 8, 9면
→우수종자소개 10면
→원예조경자재의 이해 11면
→Small Garden Project 12면
→취미로 기르는 야생화 13면
→지상중계 14, 15면
→특집 16면

인사말 — 2005년도 우리꽃은...

우리꽃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독자 및 고객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꽃이 고객들과 함께 하고픈 바램과 새로운 한국조경의 발전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발행하던 우리넷이 새로운 기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발행하던 월간지의 형식을 버리고 격월간지로 하는 대신 페이지수를 2배로 늘려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전문적이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우리꽃은 부산, 경남지사, 광주, 전남지사, (주)웰빙라이프, 서울지사를 두어 이제 조경용 숙근지피식물 시장에서 최고의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 5월부터 약 1,000여종의 토종 및 자체개발품종 그리고 선진국의 우수 조경용 식물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 최초로 매월 필드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최초의 필드대회는 지금까지 조경계가 안고 있는 숙근지피식물에 대한 상식의 범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 관련전문가는 물론 업체, 관공서, 학교 등 모든 현장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문가 네트워크을 구성, 정보와 기술이 공유되는 현장으로 그리고 만남이 있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꽃은 연구소의 중앙 포지에 각 품종을 1㎡씩 식재하여 누구나 그 특성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새로운 품종들에 대한 지식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우리넷은 앞으로 우리꽃의 필드대회를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전문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넷은 독자여러분들이 정성껏 도와주시는 사랑으로 더욱 더 알차집니다.

우리넷에는 여러분들의 생활과 정보와 꿈이 닮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필드대회의 현장에서 찾아뵈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가면 송꼭리에서 박공영

업 그레이드 고급소재 무늬종시리즈⑦

아름다운 황금색 무늬종 호스타 '골든티아라'

호스타(Hosta)는 세계적으로 조경에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는 식물로 약 70여종 이상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옥잠화, 비비추 정도가 조경에 흔히 이용되어지고 있는 호스타이다. 특히 나무아래를 비롯한 음지에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는 소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정적으로 호스타 품종이 적용되어져 왔는데 실제로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난 품종 뿐만 아니라 무늬 또한 다양하여 잎 자체만으로 뛰어난 관상가치가 있는 품종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호스타 '골든티아라' (Hosta 'Golden Tiara')는 잎 가장자리에 황금색 무늬가 들어 있는 매우 아름다운 무늬종 호스타이다. '블루문' 과 함께 '우리꽃' 에서 대량증식을 통해서 3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하여 널리 알려진 품종으로 형태적으로는 키와 잎이 작은 왜성종이며 초장이 약 30cm 정도 자라며 꽃대는 60cm까지 올라온다. 포기 모양이 매우 좋아 고급조경에 알맞으며 잎 뿐만 아니라 한여름의 보라색 꽃도 매우 화려하다. 일부 무늬종은 여름에 무늬가 퇴색되기도 하나 '골든티아라' 는 여름철 개화 후에도 선명한 칼라를 유지한다.

나무아래, 건물 주변 등 음지에 군식하거나 열식해도 좋고 잎의 무늬가 좋기 때문에 혼합식재시 또는 돌계단의 틈새 등에 포인트식물로 활용해도 좋다. 또한 호스타 품종간 혼식시에도 잘 어울리는 품종이다.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식재시 토양에 충분히 퇴비를 섞어주고 연 2-3회 시비를 해주어야 매년 계속해서 싱싱한 잎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번식 또한 잘 된다.

관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병해충 등으로 인해 잎이 지저분하게 되면 과감하게 잘라내어 새순을 받는 것이 좋고, 식재 후 몇년동안 번식이 되어 너무 꽉 찌들게 되면 가을에 분주를 하여 나누어 심으면 이듬해 다시 좋은 포기모양으로 봄을 맞이한다.

앞으로 호스타 '골든티아라' 가 내뿜는 황금색무늬의 물결이 각 조경현장을 환하게 빛내 줄 것을 기대해본다.

특별기획 〉〉〉〉 종자 프로젝트 – ①

우리꽃이 종자시장의 경쟁력을 키워갑니다 !

국내 종자시장은 크게 채소종자시장과 화훼종자시장 그리고 주곡종자시장, 사방용종자시장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종자시장이 IMF로 외국의 종자시장에 다 넘어갔다고 알고 있으며 사실이 그러합니다. 이때 말하는 이 종자시장은 채소종자시장을 말한다.

그러나 화훼종자시장은 국내 최고의 중앙화훼종묘, 서울종묘원예부, 흥농종묘원예부 등 초창기의 화훼시장부터 순수 국내기술의 화훼시장은 없었다.

물론 최근의 국내 고급 1년초 화훼종자시장을 대표하는 중앙화훼종묘, 한미프러그, 신젠타종묘화훼부, 코레곤, 금화플로리 등의 회사들도 모두 외국의 화훼종자 회사로부터 도입하여 유통하는 유통회사이다.

이는 채소종자와 달리 국내 화훼종자시장이 너무도 작아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곡종자시장이라 함은 벼와 보리 밀 등의 종자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시장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민간에 넘기지 않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하는 곳이 국립종자관리소이다.

이번호부터 종자이야기를 다룰 종자시장은 사방용 종자시장을 중심으로 조경과 녹화용으로 이용되는 종자와 야생화 및 경쟁력 있는 향토종자에 관하여 어떻게 채종하고 번식하며 또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꾸밀까하며 이번호는 전반적인 종자의 개념을 다루려고 한다.

사실 향토종자의 사용은 최근에 와서야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이도 다른 종자사업에 비해서는 초보적인 정도이다.

국내 대표적인 향토, 사방용 종자회사로는 (주)[illegible]린 등이 있으며 우리꽃, (주)자연과환경, 원[illegible]은 신생업체로써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꽃은 국내 최초의 자체, 최대 생산회사로서 국내에 18만평의 농장에서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하는 야생화의 수량과 품목대비 최대의 원도매회사로 성장하였다.

고급종 과꽃 채종포

이는 근대화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사방종자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인건비의 상승과 국토산림의 울창화로 사방종자의 채취가 불가능해져 현재 국내 거래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양잔디를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다.

그나마 중국의 싼 인건비에 의한 자연채취는 지금까지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사방종자의 가격상승은 물론 5-6년내로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서부대개발에 의한 종자의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적송의 수출을 금지했다.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적송종자는 해송에 가까운 종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일부는 적송으로 속여 팔기도 한다.

그리고 2005년 싸리, 비수리, 낭아초, 안고초 등 국내 사방용 향토종자의 국내 반입(수입)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되어 국내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도 종자량이 예년에 비해 적은 량이 수입되어 후반기에 갈수록 품귀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수목, 사방용, 녹화용, 야생화, 향토종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몇몇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소개하고 끝을 맺을까 한다.

첫째,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 및 영업사원들의 종자에 대한 지식이 나무 희박하다.

이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종자의 모양이나 특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전혀 다른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예전 알이지만 벌개미취라고 판매한 종자가 노란 꽃을 피우는 귀화종 강한잡초인 쇠방가지풍연 것을 필자가 지적한 경험이 있는가 하면 구절초라고 하여 판매한 종자가 산국으로 판명된 경우, 꽃향유라고 하여 판매된 종자가 꽃이 아름답지 않은 향유로, 낭아초로 판매하는 종자가 전동싸리로 판명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가끔 잘못 판매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자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종자인지도 모르고 팔고 있는 경우도 있다.

둘째, 자생초종인지 도입초종인지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한창 채종에 바쁜 우리꽃 중국현지농장

요즘은 그나마 많이 좋아 졌지만 아직도 우리 토종의 종자인지 외국의 도입종자인지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자생토종종자를 추천을 의뢰하면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도입종을 자생종으로 추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말 몰라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비도덕적인 상술에 의한 경우일 수도 있다.

셋째, 묵은 종자를 햇종자로 속여파는 경우가 있다.

사실 발아율만 나쁘지 않다면 별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입찰 등의 경우 햇종자를 요구할 경우가 있다. 이때 묵은 종자를 햇종자라고 속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발주처에서 이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자운영의 경우 그해 당년종자를 발아시키면 절대로 80%의 발아율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나 입찰유의서 등에는 당년산이라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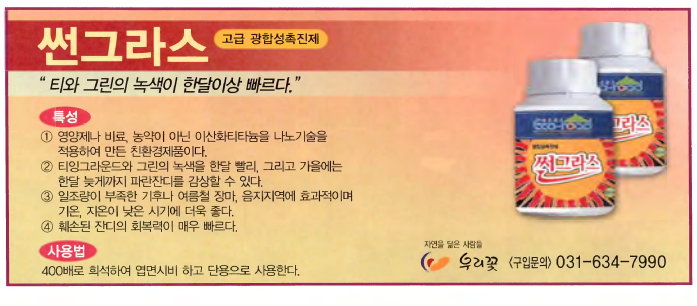
때문에 어떤 회사는 무턱대고 입찰했다가 큰낭패를 본경우가 있다. 요구한대로 중국에서 당년에 채취한 종자를 납품했다가 발아률이 규정에 못 미쳐 낭패를 본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아마도 아직 그 회사는 자운영의 당년산 종자가 발아가 안 좋은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넷째, 종자의 생리적 특성을 자세히 몰라 현장적용시 효과가 감소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대립종은 땅속에 묻혀야 발아가 잘되지만 미립종의 많은 경우는 광발아성으로 빛을 보아야만 발아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예를들면 밭이나 논에 밭갈이를 하면 심하게 잡초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종류의 초본들이 대부분 광발성 종자인 것이다. 많은 야생화 종자는 광발아성을 갖는다.

따라서 녹생토로 취부의 경우 큰종자나 작지만 암발아, 광발아 모두 잘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발아가 촉진 되는 종류의 경우는 종자를 2차적으로 Seed Spray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
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①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피식물들이 조경용으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활발히 이용되어지는 다양한 지피식물들을 식물군(Genus)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과 품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Phlox속(풀협죽도속)

꽃고비과로서 세계적으로 약67종이 분포하며 대부분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국내에서 조경용으로 이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종이 꽃잔디와 후룩스 이다. 후룩스는 속명과 이름이 같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꽃잔디가 Phlox속 인것은 대부분 몰랐던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후룩스와 꽃잔디는 꽃이 아름다워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조경용으로 도로변, 공원, 정원 등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는 소재이다.

후룩스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일년생 (Phlox drummondii)과 다년생(Phlox paniculata)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경에 널리 이용되어지는 것은 다년초인 숙근후룩스이다. 생육이 강하고 재배가 쉬운 식물로 주로 도로변에 군식, 열식으로 사용되면서 오래전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품목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있는데 '우리꽃'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개량후룩스는 기존의 후룩스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분홍색, 흰색, 빨강색 등 화색이 다양하고 원추형, 마름모형 등의 화형 또한 다양하다.

일반 후룩스가 주로 7-8월 여름에 꽃이 피고 이 시기에 흰가루병이 쉽게 발병하는 반면 개량후룩스는 6월부터 10월까지 오래동안 장기 개화하며 내병성 또한 뛰어나 싱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다. 도로가는 물론 골프장, 정원, 식물원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은 소재이다.

▲ 후룩스의 여러품종

꽃잔디

아메리카 동부 원산의 다년초로서 꽃방석을 연상시킬정도로 아름다운 대표적인 봄꽃이다. 국내에서 간혹 지면패랭이라고도 불리다보니 패랭이와 같은 석죽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피복력이 뛰어나 지면으로 잘 퍼지면서 패랭이꽃과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품종에 따라 연분홍,적색, 진분홍, 흰색, 보라색 등 화색이 다양한데 기존에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종은 연분홍색(Phlox subulata)이고 일부 흰꽃잔디(Phlox subulata 'Alba') 가 이용되어져왔다.

봄에 아름다운 꽃이 지고난뒤 여름으로 넘어 오면서 잎에 하고현상이 일어나 매우 보기 싫게 되어지는 것이 단점인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것이 꽃잔디 '레드킹' (Phlox douglasii 'Red king')이다. 일반 꽃잔디에 비해서 꽃이 크고 화색(진분홍)이 선명하며 잎의 절간이 짧고 여름철에도 줄기마름현상이 없어 진한 녹색을 유지하여 골프장 등 각처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꽃은 올해에도 적색(Phlox nana 'Arroya')과 보라색(Phlox subulata 'Emerald Cushion Blue')의 꽃을 피우는 새로운 품종의 꽃잔디를 선보일 계획이다.

옥상, 암석 가든용 식물
연재 ❶

옥상 혹은 암석정원의 식물과 특성 이해

락가든

최근 환경과 조경이 결합되면서 락가든(암석정원 rock garden)은 바위와 암생(岩生)식물로 만든 정원, 암석을 보기 좋게 쌓아 올리고, 거기에다 고산(高山)상태와 비슷한 암석이 섞인 토양의 작은 장소를 만들어 식물을 가꾼 관상용 정원으로 화단의 한 양식을 말한다. 고산식물이나 특수식물을 심기 위하여 연구된 것이며, 17세기경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고산식물원(alpine garden)으로 사용되어 로커리(rockery)라고도 불렸다. 또한 옥상조경(屋上庭園 roof garden)은 건물 옥상에 만들어진 정원으로 유휴지가 별로 없는 대도시에서는 옥상에 녹지를 설계함으로써 꽃과 녹음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열효과로 냉 · 난방 에너지절약 효과, 누수방지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선 락가든과 옥상가든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성 환경과 적절한 식물군의 선택 등에 대한 총론적 사고를 해보고 다음호부터는 식물을 중심으로 우량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면 식물선택의 중요한 수단은 무엇일까?

필자의 대답은 한가지다. 이용하는 고객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실 락가든이나 옥상조경은 대부분 양지, 건조지, 극박한 열의 변화 때문에 일반적인 식물을 심으면 곤란하다, 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어떤 식물은 되고 어떤 식물은 되지 않는다,라고들 생각해 어렵게만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의 조경환경은 인간이 선택적으로 모두 해결한다. 이 이야기는 옥상이라고 해도 아무리 메마른 암석이라 해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관수가 되게 한다거나 여름의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 미스터관수나 차광도 인위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설계자가 의도한다면 어떤식물을 선택하더라도 생육에 큰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돌틈속에서 자라고 있는 엘피니움

돌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saxifraga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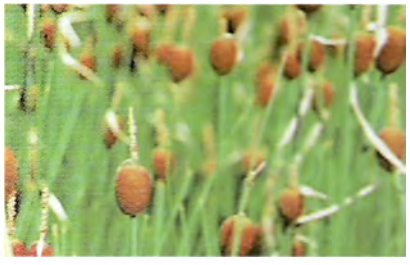
그러면 락가든은 옥상정원은 왜 만드는 것인가?

인간이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하여 자연으로부터 배운 경관을 인위적으로 옮겨놓아 필요할때마다 쉽게 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식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연에서 배운 선택적 식물을 도입하는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암석가든이나 옥상가든을 굳이 만드는 것은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식물적인 요인까지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다.

때문에 옥상용, 혹은 락가든용 식물이라고 분류가 가능해지고 필요해지는 것이다.

도시 가정연못의 신소재 "애기좁부들"

수중, 수변식물의 올바른이해
연재 ❼



연못가, 논주변의 습지 등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중식물중의 하나가 부들이다. 이삭의 모양이 어릴때 즐겨 먹던 핫도그와 비슷하게 생겨 친근하게 느껴지는 식물로 근래들어 하천변의 생태복원, 폰드조성시 수중식물로 자주 이용되어지고 있다. 주로 수심이 30~40cm정도 되는곳까지 잘자라며 근경으로 번식하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부들(Typha latifolia)과 애기부들(Typha angustata)로 분류되어져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름만 보아서는 애기부들이 키가 작아서 붙여진 이름인듯 하지만 실제로는 키는 모두 1~1.5m이상 자라며 잎의 모양면에서 차이가 있다. 애기부들은 부들에 비해 잎이 좁고 전체적인 형태가 직선형으로 뻗어 나오는 반면 부들은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늬종인 무늬부들(Typha latifolia 'Variegata')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약 15종이 분포하는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애기좁부들(Typha minima) 또한 이 중의 하나이다. 왜성종으로 키에 따라서 몇종류로 나뉘어 지는데 키는 약 30~70cm정도 되고 이삭꼬투리도 1.5~5cm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정에서 작은 연못을 조성할 시 창포, 수련, 물사초류, 꽃창포 등 다양한 수변, 수중식물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부들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태복원용 하천변이나 큰연못에서는 수중식물로 사용가능하지만 가정의 작은 연못에서는 그 크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 소재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다. 하지만 애기좁부들은 일반 큰 연못뿐만 아니라 도시가정의 작은 연못에서도 부들 군락을 재현할 수 있게 하는 소재인 동시에 연못의 크기, 조경특성에 따라 이삭의 크기와 키의 크기를 맞추어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통(container)에서도 수련 등 타식물과 잘 어울려 재배가 가능하며 절화용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어질 수 있다. 근경으로 번식하며 특별이 관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자란다.

이제 애기좁부들은 도시가정의 소연못조성(Water Garden)의 좋은 신소재로 활용해 봄직하며 그로인해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쉽게 부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란다.

연재 ❶ 화본과 사초과 식물군으로 대표되는 Grass Scapes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멋스런 감동, 그라스 조경

우리는 억새를 많이 심는다. 특히 최근에 와서 억새는 주요 숙근지피식물의 대표종이 되었다.

또 수크령과 띠의 이용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부들은 생태연못의 단골메뉴가 되었고 사사조릿대는 상록의 최고 조경수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물속에 심겨진 무늬금리새리아

자리대사초, 금리새리아, 골, 방동사니류, 줄풀, 무늬줄풀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 특성들이 연상되는 이런 품목들을 통칭해서 그라스(Grass)라고 하고 조경용 숙근지피식물의 큰 군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라스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고 잘 이용되지 않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건 '우리꽃'의 시공사례를 보건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고 특히 가을 단풍의 질감과 일반적인 식물이 없는 겨울에 더욱 돋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많은 종류의 그라스는 매우 유용하게 조경에 이용할 수 있고 식물의 품이나 질감이 아주 다양하여 특징적인 조경을 연출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화본과는 이름은 같지만 습성이나 형태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억새만 보아도 잎이 조밀하고 겨울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이삭은 매우 크고 하향고 좋은데 바람에 쉽게 꺾이고 넘어지는 종류 등 잘 분류하고 선발하면 아주 유용한 개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라스는 형태(폼) 또한 다양하다.

잎의 질감이 뛰어나다.

우리의 도감에 나와 있는 종류보다 더 많은 부들과 더 많은 물억새 종류, 더 많은 사초과 식물들이 있다.

현재 '우리꽃'은 본격적으로 화본과의 계통분류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화본과와 사초과 식물을 수집하고 차이와 그이용성에 대한 품종별 가치를 체크하여 우량의 품종까지도 선발하려고 한다.

대부분 억새 등 화본과 및 사초과, 골풀과 등의 그라스 종류는 그 과(科)가 매우 큰 군으로 생육 환경적응폭이 매우 넓어 수생식물에서 극건조 암석지에까지 사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제주에서 저 백두산 정상부근에서까지 잘 견디는 종류가 있다.

따라서 그라스종류의 현장조경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그라스 종류는 화려하지는 않다. 따라서 너무 군락을 작게 할 경우에는 큰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서는 대단위 면적의 조성등도 검토해 볼만하다.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연재 ❶

음지 조경의 기본적인 이해는 식물 사회학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우선 음지식물이란 기본적으로 빛이 상대적으로 적은곳에서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따라서 음지식물은 햇빛을 싫어한다. 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금낭화와 같이 봄에 꽃이 피고난 뒤 여름에 사라지는 식물은 활엽수 아래 음지에 식재가 가능하다.

어떤 식물이든 햇빛에 의한 빛을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의 접근은 식물사회학적인 접근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참나무림 식물의 계층의 사회학적 접근을 살펴보자. 우선 최고 극상의 큰 교목인 참나무 아래는 아교목인 노린재나무나 생강나무 등이 있고 그 아래는 철쭉이나 고광나무 등과 같은 키가 큰 관목류가 또 그 아래에는 국수나무, 산수국, 산죽등의 관목이 있고 그 하부 식생으로 금낭화, 복수초, 비비추, 처녀치마, 족도리풀, 맥문동, 풀솜대, 애기나리, 천남성 등의 초본류 들이 식생한다. 이런 최고의 참나무와 천남성은 그 광의 세기는 다르지만 모두 빛을 좋아 하는 식물이다.
식물사회학의 기본은 숲을 이루는 이 계층간의 빛의 나눔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다. 특히 음지식물이나 양지 식물이니 하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위의 식생구조로 살펴보면 참나무는 태양이 내려준 100개의 빛의 알갱이를 모두 받아서 이용하고 그 아래의 노린재나 생강나무의 경우 참나무가 이용하고 버린 80개의 빛을 받아 이용하고 그 아래의 철쭉이나 고광나무 등은 60개의 빛 알갱이를 그 아래 국수나무, 산수국 등은 50개의 빛알갱이를 그리고 비비추, 맥문동 등은 약40개의 빛의 알갱이를 이용하여 서로의 경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들이 이렇게 단순한 사회로 이루어져 있다면 종다양성은 사라지고 많은 식물들이 멸종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때 봄 일찍 꽃을 피우는 금낭화, 복수초, 현호색, 산괴불주머니, 남산제비꽃, 천남성, 바람꽃 등은 참나무도 생강나무도 철쭉이나 산수국 등의 잎이 나기 전 혹은 일부 자랐을 때 꽃을 피우는 양지성의 식물이다. 아마도 이런 식물들을 양지성 식물이다. 라고 한다면 모두 깜짝 놀라거나 펄자에게 항의를 해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조경식물학이나 도감의 많은 문구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식물도감이 가지는 가장 큰 이유와 설명은 식물의 유연관계를 밝히고 정리한 분류에 있고 이 분류기의 핵심은 생김새와 식생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식물의 형태학적 분류의 가장 중요한 분류키는 생식기를 중심으로 한 분류가 그 근간이고 기본이었다. 자, 그렇다면 금낭화가 피는 장소는 이른 봄 햇빛이 거의 100% 식물체에 닿는 다. 복수초는 활엽수 아래에서 자라지만 해가 뜨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고 아침에 활짝 피었다가 흐려지면 이내 꽃을 닫아버린다.

음지를 밝고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양년생초화를 혼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물을 양지식물이라 할 것인가 음지식물이라 할 것인가? 필자는 이들을 양지식물로 분류한다.
다만 이들은 여름이 되고 수풀이 울창하게 되면 이내 종자를 맺 구고 휴면에 들어가는 종류가 많다. 따라서 양지식물이긴 하지만 생육기가 짧아 양지에 단독으로 심으면 여름휴면기때 식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단독식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혼합식재의 적용기법으로 2가지 이상의 식물을 같은 장소에 식재하는 혼성식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식물은 건물에 의한 음지나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진 음지에서는 생육이 매우 곤란하고 점점 약해져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아주 햇빛이 잘 드는 낙엽수림이나 양지에 기타 여름식물과 같이 심으면 꽃은 화려하게 피고 그 다음해도 더욱 좋아진다. 꽃무릇이나 상사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다.
이와 같이 식물의 사회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식생환경에 잘 견디고 아름다워 지게 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있다.
덧붙이면 위도나 표고에 영향을 받는 온도, 물의 인자에 의한 습도, 양분과 산도에 의한 요인과 동물의 제한요인 등이 식물사회학적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들이다.

연장리포트

세덤을 이용한 소면적의 옥상정원 녹화

옥상녹화를 위해 다양한 소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면적이 넓지 않은 옥상화단을 세덤을 가지고 녹화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4년 4월 29일)
한전 수원지사' 의 새로운 신축건물 옥상은 소규모의 화단과 그 양편에 벤치를 두어 근무자들의 휴게실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아담하게 조성되었다. 화단의 크기는 60㎡정도이고 뒤편으로는 작은 소나무 6그루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져 있었고 그나머지 부분을 세덤으로 조성되도록 설계되어져 있었다. 전체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대현조경(담당 윤선구 이사)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꽃' 이 선보이는 우수품종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면적이기 때문에 많은 품종보다는 잎의 질감이 좋고 주로 상록성인 세덤 6품종을 적용했다. 먼저 양편 가장자리쪽으로 꽃이 화려하고 장기개화종인 비단세덤을 식재하고 한가운데는 사계절 단풍을 자랑하는 단풍세덤으로 수놓은 뒤 양편으로 각각 2품종씩 연속 배치하였다.

비단세덤과 섬기린의 조화

왼쪽편으로는 순백의 무늬가 돋보이는 무늬돌나물과 우리나라 자생종세덤이면서 반상록성인 섬기린초를 심었다. 그 반대편으로는 질감이 뛰어난 블루톤의 블루솔세덤과 조밀한 잎과 가을단풍이 좋은 백두산애기세덤으로 조성하였다.
식재 2달후(2004년 7월) 비단세덤의 진분홍꽃을 비롯하여 블루솔세덤, 섬기린초의 노란색꽃과 다양한 엽색의 조화를 통해서 도심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아담하면서도 자연스런 경관이 조성되었고 근무자들의 안락한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다.
국내에도 이제는 많은 세덤품종들이 조경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좋은 품종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 화색, 엽색, 상록유무, 형태(포복, 반직립, 직립)등 이 모든 것이 고려되어져야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풍세덤

▲ 비단세덤

▲ 블루솔세덤

우리꽃 "현장히트 품종"

최고의 옹벽차폐용 소재

눈붉은찔레

위에서 아래로 빨강의 식물폭포

1. 국내 땅찔레를 개량한 최상의 향토수종
2. 자람이 빨라 옹벽, 암사면, 올타리녹화 1년이면 OK !!
3. 절간이 짧고 마디마디 꽃대형성, 온통 붉은 바다
4. 중앙분리대 등에도 좋다.

▲ 빼른 옹벽녹화

매우 화려하게 붉게 수놓는 꽃

잎과 꽃 최고의 상록패랭이

왕상록패랭이

잎의 질감 최고, 신개념 상록패랭이

1. 블루색의 잎은 일반 상록패랭이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질감이 뛰어나다.
2. 라인을 형성하거나 건조지 식재를 위한 최상의 품종군
3. 화색이 다양하여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어울려 식재해도 좋다.
4. 일반 상록패랭이의 단점인 여름에 짖무르는 현상이 전혀 없는 신개념의 상록패랭이

왕상록 매혹

왕상록 연지

왕상록 참이슬

왕상록 카멜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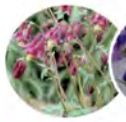
아름다운 봄의 향연

매발톱류

다양한 화형과 화색의 10여종 보유

1. 잎과 꽃이 매우 좋다.
2. 공원, 골프장, 전원주택 등 최상의 봄식물
3. 다양한 품종으로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4. 어떤 품종과도 잘어울리는 식물로 잎의 모양도 매우 고급스럽다.

메카나매발톱



서양매발톱

하늘매발톱

흰하늘매발톱

캐다나연매발톱

본 란에 소개되는 품종은 지금시기에 식재하거나 감상하기에 좋은 품종으로 식재시 활용자료로 활용하십시오.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잔디같은 패랭이
잔디패랭이

화색이 좋고 피복력이 최상
1. 최근 국제 신품종 소재종 최고 인기종
2. 키가 작고 꽃이 좋아 잔디밭이나 골프장, 쌈지, 화분 등의 조경에 최상

화려함의 진수
독일붓꽃 (10품종)

생육이 강건하고 꽃이 아름다운
1. 잎과 꽃이 아름다워 고급조경에 적합
2. 기타 식물과의 혼합과 혼자만의 색을 연출

신개념의 수변식물
무늬글리세리아

연못주변의 새로운 대안식물
1. 무늬가 매우 아름답다.
2. 키가 적당히 커 최상의 조경용 수변식물

화려한 장미형 신소재
붉은꽃뱀무

화색이 아름다운 강한 지피
1. 큰겹꽃으로 재배가 쉽고 강하다.
2. 장미형의 붉은꽃은 매우 화려하다.

모복성으로 지피력이 뛰어난
음지황국

잎과 꽃이 뛰어난 최고의 음·양지용 소재
1. 음지의 새로운 대안식물
2. 장기개화하는 노랑색의 꽃이 절경

생육이 강하고 아름다운 영초
개량뱅초

다양한 화색의 꽃무리
1. 이른봄 화려한 꽃을 연출
2. 다양한 화색의 꽃이 어우러져 아름답다.

이색적인 꽃잔치
니포피아

내한성이 강한 품종
1. 이색적인 꽃잎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주목
2. 골프장 티하우스 주변에 적응하면 일품

화색이 너무나 아름다운
개량톱풀

파스텔톤의 고급정원용
1. 건조한곳의 생육도 매우 양호
2. 다양한 화색의 고급 정원용, 공원, 골프장용

새로운 개념의 사루비아
숙근사루비아

생육이 왕성하고 재배하기 쉬운
1. 생육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보라색 사루비아
2. 매년 교체할 필요없이 1회 식재로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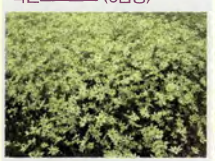
이국적인 아름다움
디기탈리스

목초, 전원주택 등의 전물과 찰떡궁합
1. 꽃의 봄품이 크고 화려하여 뒷줄식물로 양호
2. 화기가 길고 화려한 고급종

봄, 벌개미취라 불러도 좋다.
구름국화 '봄비'

다양한 화색의 꽃무리
1. 봄에 피는 아름다운 국화
2. 건조에도 강한 최고의 화단식물

봄부터 가을까지 황금물결
숙근코스모스 (5품종)



조밀하고 아름다운 키작은 꽃방석
1. 5월부터 9월까지 연속개화
2. 다양한 화색의 새로운 고급지피소재

음지의 빠른지피
무늬엔젤리카

화려한 무늬의 잎과 꽃
1. 습기가 많은 여름철 최고의 수변식물
2. 생육이 강건하여 음·양지 및 건·습지를 리지 않는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
발레리안

음·양지, 건·습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1. 꽃이 조밀하고 아름답다.
2. 할엽수 아래는 물론 바위절개지에도 생육이 좋다.

전상의 아름다움
숙근뽀삐

대면적의 최고 이벤트
1. 꽃이 매우 화려하고 강렬하다.
2. 공원, 둔치 등의 대면적에 활용하면 좋다.

잎이 작고 조밀한 아주가
애기아주가

음지나 혹은 라인식물로 좋은
1. 기존 아주가의 단점인 혼식시 다른 식물로의 침범이 없다.
2. 잎이 좋아 라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분홍색 루드베키아
에키나

장기개화형의 이국적 아름다움
1. 생육이 강해 어떤환경도 좋다.
2. 꽃이 져도 열매가 아름다운 이상형
3. 철화용으로도 양호

모양이 좋은 키작은 옥잠
옥잠 '블루문'

골프장, 전원주택 등의 고급조경용
1. 잔한 블루색 잎의 짙감이 매우 뛰어나다.
2. 보라색의 아름다운 꽃은 잎과 잘 어울린다.

실타래 같은 수변의 무늬종
해변무늬실사초

건·습지 등 어디에서나 생육이 가능한
1. 잎의 경태나 짙감이 매우 뛰어나다.
2. 생육이 강건하고 연못과 인공계곡 등에 이용하면 좋다.

로제트형의 잎과 꽃이 모두 좋은
큰꽃장대나물

상록의 새로운 락가든소재
1. 이른봄 앙증맞은 꽃을 선사
2. 건조에 강해 옥상조경, 락가든용으로 좋다.

부족한 초대형 초본식물의 발견
칸나 '파초'

키 2.5~3m 폭 2m의 대형식물
1. 독립수로 창가 등의 식재로 안정감 회복
2. 올타리용은 물론 빛이 드는 실내 화분용으로도 최상

우량의 향토종 복원
흰붓꽃

화색이 깨끗한 토종의 아름다움
1. 노랑색이 섞인 흰색의 꽃잎은 매우 화려하다.
2. 생육이 강해 수변지 및 어떤장소에도 좋다.

시원하고 아름다운 여름의 귀공자
리아트리스

잎과 꽃이 모두 아름다운 장기 개화형
1. 개화기 길고 초형이 아름다운 신조경식물
2. 직립의 꽃무리는 여름의 귀공자

키가 작은 최상의 아름다움
숙근왜성천인국

꽃이 아름답고 키가 작은 여름대표식물
1.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길다.
2. 화색이 아름답고 강렬해 최상의 포인트식물

정열적인 여름화신
모다나

새로운 개념의 화단, 도로용 지피식물
1. 매우 정열적인 화려함을 선사
2. 잎의 향기가 뛰어나며 생육이 강건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스텔라원추리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 개화종
1. 꽃이 탐스럽고 화수가 많다.
2.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물위를 기어다니는 새로운 수중식물
물아카시아

수질정화에서 쉬운 뒷처리까지
1. 생장이 빨라 일년에 15m이상 자란다.
2. 관상기치뿐만아니라 그 기능성면에서 월등한 수중식물

연중 단풍이 든채로 OK
단풍세덤

꽃이 아름답고 건조에 극히 강
1. 건조시 피복용으로 안성맞춤
2. 연중 붉게 물드는 단풍색은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

강렬한 빨강색 초롱꽃
초롱꽃 '체리벨'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
1. 다화성의 꽃은 매우 아름답고 탐스럽다.
2. 빨강색의 꽃은 다른 식물들과도 잘 어울린다.

다화성의 키작은 용담
하늘용담

늦가을까지 보석같은 꽃을 피우는
1. 잎의 모양, 식물품, 화색, 화형이 모두 좋은 용담
2. 일반 화단은 물론, 옥상, 락가든에도 좋다.

화색이 보라색으로 아름다운
불가리스할미꽃

봄을 알리는 새로운 할미꽃
1. 생육이 좋은 최상의 봄꽃
2. 분화용으로도 인기

이색적인 무늬종 아주가
아주가 '레인보우'

음지의 빠른 녹화
1. 잎의 무늬가 아름답고 지피력이 뛰어나다.
2. 나무아래 등 음지에 군식하면 좋다.

꽃이 아름답고 극건조에 강한
게란꽃

락가든이나 옥상조경용 신소재
1. 상록성의 작은 꽃은 매우 아름답다.
2. 암석, 자갈 등과 잘 어울려 락가든에 이용하면 좋다.

화려한 관목, 장기개화형
부들레야

독립수로, 울타리로 이용해도 OK
1. 다화성의 장기개화형 관목
2. 이색적인 꼬리형의 새로운 대안식물

동자꽃의 새이름
비단동자

건조에도 강한 화려한 동자
1. 일반 동자꽃에 비해 생육이 매우 강하다.
2. 양지, 건조에 강해 관리가 쉽고 화려하다.

잎이 아름다운 키작은 조팝
삼색조팝

가을의 단풍은 일품
1. 황금색잎에 붉은빛을 띄는 새순과 가을단풍이 아름답다.
2. 도로변, 골프장, 공원 등에 식재하면 좋다.

새롭게 가을을 수놓는 소재
아네모네

화색이 아름다운 고급 가을꽃
1. 생육이 강건하고 화색이 아름답다.
2. 가을꽃이 부족한 조경현장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소재

음지의 뛰어난 신소재
무늬여뀌

생육이 매우 빠른 무늬종
1. 잎의 짙감과 무늬가 좋은 고급종
2. 음지의 빠른지피를 위한 최고의 소재

잎의 짙감이 매우 뛰어난
은쑥

은화색의 뛰어난 지피력
1. 지피력이 매우 뛰어나다.
2. 잎의 짙감이 뛰어나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촛불형의 키작은 꼬리풀
꼬리풀 '이브'

자주빛 아름다운 여름꽃
1. 화색이 선명하고 다화성이다.
2. 골프장, 공원, 식물원 등에 혼식시 이용하면 좋다.

나비들이 환흘한 잔치
가우라 '레드버터플라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1. 아름다운 꽃은 날으는 나비를 연상
2. 생육이 강해 어디에 적용해도 잘 자람

5월부터 10월까지 개화하는
분홍달맞이

꽃이 크고 화색이 아름다운
1. 꽃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다.
2. 다화성의 장기개화형 숙근달맞이

황금색 카펫
황금리시마키아

황금색의 뛰어난 지피력
1. 지피력이 매우 뛰어나며 음지에도 좋다.
2. 황금색의 조밀한 잎은 뛰어난 경관연출

여름과 가을에 개화하는
초롱꽃 '켄트벨'

금강초롱과 비슷한 모양
1. 화색이 진하고 화수가 많아 고급조경용 소재
2. 생육이 기타 초롱꽃에 비해 월등히 강함

음습지의 새로운 지피식물
무늬피막이

토양피복력이 뛰어난 무늬종
1. 습지와 나무아래 음지에서도 생육이 좋다.
2. 골프장의 배수불량지나 진디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음지, 전원주택의 구석진곳, 돌계단틈새 적용

잎의 짙감이 매우 뛰어난
블루애기세덤

상록의 블루색카펫
1. 상록성의 강한 세덤
2. 잎의 짙감이 최고

촛불형의 키작은 노루오줌
아스틸베 ' 쇼스타'

아름다운 꽃과 잎의 조화
1. 화색이 다양하고 잎의 광택이 좋다.
2. 수변공간을 비롯 정원등의 안성맞춤소재

수중식물의 신소재
무늬창포

향기가 좋고 무늬가 좋은
1. 무늬가 아름다워 연못조성시 포인트식물로 좋다.
2. 생작이나 증식이 매우 빠르고 물의 정화능력도 뛰어나다.

황금색 무늬가 좋은
무늬여우꼬리그라스

생육이 강건한 무늬종
1. 생육이 왕성하고 무늬가 아름다운 희본과식물
2. 군식하거나 다른식물과 어울려 포인트식물로도 좋다.

상록의 귀족 수변식물
물사초 ' 골드밴드'

아름다운 초형의 대표식물
1. 무늬가 매우 아름답고 짙감이 뛰어나다.
2. 수변은 물론 일반 나지 혹은 반음지 및 건물 등과 잘 어울리는 무늬종

우리꽃 우수종자 소개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

〈 2004년 5월 2일 〉

〈 2004년 5월 20일 〉

〈 2004년 6월 3일 〉

◀ 무늬질경이

골프장, 도로가, 아파트의 새로운 경관연출

첫해부터 아름다운 경관연출

우리법면혼합종은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해에는 일년생위주로 꽃을 피우 첫해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다음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년생들이 꽃을 피워 매년 계속적으로 안정된 식생을 유지하게 된다.

2005년 새롭게 무늬질경이 혼합

최근 타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혼합하여 우리법면시리즈 인양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실패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법면시리즈의 진품을 가리기위해 우리꽃에서는 2005년부터 무늬질경이를 혼합하여 새롭게 선보일 것이다.

안정된 혼합비율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서로간의 혼합비율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어우러지지 못한다. 기존 타회사에서 혼합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다. 꽃만 보고 대충 혼합하다보니 첫해에는 문제가 없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서로간 생육이 불균형을 이뤄지면서 경관이 대부분 망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법면 혼합종은 수년간 식물의 특성과 발아율, 실험을 통하여 명확한 비율을 규명하여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숙근 지피식물의 새로운 식재기법과 아름다운 공간연출자재

조경자재의 올바른 이해와 선택

연재 ❶

G-커버와 그린키퍼

(주)한터21
대표 최 종 권

최근 조경의 형태는 토양퍼복의 형태로 잔디밭 위주에서 계절별로 꽃을 볼수 있는 숙근초를 이용한 조경이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이로인한 토양의 유실과 잡초의 해 그리고 여름철 우기에 식물의 병해충의 심화 및 과습에 의한 피해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조성되기 전과 없이 없는 겨울의 황량함이란 그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숙근초(지피식물, Ground Cover Plant)를 적용하고 식재 관리해온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의 경우 아주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분야가 이 피복자재 였다.

이런 피복자재의 사용은 관리비를 매우 낮추고 식물의 성장과 아름다움을 더해 주어 매우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맨땅에 식물을 심고 식물이 자라서 땅을 덮어주기만을 기다린다. 그렇치 않으면 우드칩을 깔아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그냥 맨땅으로 놓아 두어도 괜찮은 식물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름철 우기에 토양의 쇄골이나 유실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겨울철이 되어 지상부가 사라지면 흙먼지를 날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드칩을 사용하는 것은 장소와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우드칩을 웬만히 깔아서는 잡초를 막을 수가 없다. 또한 여름철 습기가 많은 토양에 더욱더 습기를 머금게 되어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며 벌레의 휴면이나 기생, 날파리 등의 생육공간을 제공하며 썩으면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그 두께를 두껍게 깔았을 때나 원료가 바닷물에 젖려진 경우 염류장애를 일으켜 식물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우드칩의 이용은 과수원이나 숲의 큰 수목아래 등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우드칩을 사용하는 경우 잡초 방제에 문제가 있고 식물의 생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야생화를 재배하고 관리하는데 사실 뭐나 뭐나해도 잡초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문제이다. 때문에 이번에 소개하는 G-커버와 그린-키퍼의 이용으로 아름답고도 효과적인 조경관리가 가능해 진다.

G-커버

부직포의 한 형태이지만 통기성과 수분의 통과가 잘되어 미생물의 생육이 좋아 토양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G-커버의 효과

① 잡초를 근본적으로 방제하고 병충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관리비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킨다.
② 보온의 역할로 이른 봄 빠른 성장과 늦가을 늦은 휴면은 물론 동절기 식재의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게 해 준다.
③ 적절한 수분의 보존으로 관수횟수를 줄여도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고 비료의 용탈을 억제하여 비료를 증가시킨다.
④ 기존의 부직포 형태이지만 통기성이 좋고 토양을 부드럽게 유지해 건전한 생육을 가능하게 해준다.
⑤ 고정핀에 의한 설치가 간단하며 비용에 비해 효과가 매우 크다.

그린키퍼

그린키퍼는 다공질의 가벼운 화산자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수력이 좋으며 함께 통기성도 아주 좋은 제품이다.

또한 그 질감이 아름다워 일반적인 자갈이나 기타의 질감과는 차이가 있다. 무게도 가벼워 일반적으로 작업하기가 쉽고 보비력도 뛰어나 일반적인 추비는 위에다 해도 무방하다.

그린키퍼의 효과

① 동절기 잎이 사라져도 토양이 노출되지 않고 아름다운 질감을 연출한다.
② 비용이 저렴하고 잡초방제 등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③ 봄 가뭄이나 기타 가뭄시에 보수력을 높여 건조해를 방지하고 여름 토양온도를 낮추어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돕는다.
④ 여름철 우기시에 땅 표면과 식물체를 분리시키고 통기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생육을 돕는다.
⑤ 식물의 그린색 대비와 잘 어울려 식물을 더욱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며 G-커버와 함께 사용시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린키퍼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진참조)

❶ G-커버를 식재할 공간에 평평하게 설치한다.
❷ 그린키퍼를 G-커버위에 약 2~3cm 가량 전면에 골고루 뿌려 펼친다.
❸ 식물을 설계된 간격에 맞춘 자리의 그린키퍼를 치우고 G-커버를 식물 포트크기의 1.5~2배 정도를 절개한다.
❹ 절개한 식재지에 식물을 심고 밀쳐두었던 그린키퍼를 잘 덮어 마무리 하고 물을 준다.

한국잔디연구소 방제효과 검정 시험 보고서가 보장하는

잔디크리너

"잔디를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보호한다."

잔디크리너의 잔디병원균에 대한 항균효과

※한국잔디연구소 방제효과 검정 시험 최종보고서

처리 / 병원균	1400배액 균사생육(mm)	1400배액 항균력(%)	무처리 균사생육(mm)
라지패취	15	57.1	35
브라운패취	15	62.5	40
피씨움	0	100	40
달리스팟	7	82.5	40
탄저병	0	100	20

특성
① 골프장의 잔디병해방제에 탁월하다.
② 광범위한 정균효과과 탈취력을 발휘한다.
③ 식물성장에 필요한 미량요소를 함유한 안정성과 항균력이 뛰어난 생리활성물질 이다.
④ 침투확산 효과로 인한 농약 사용절감 및 약효를 증대시킨다.
⑤ 인산의 가용화 효과 및 유충의 부화방지효과가 있다.

사용법
보통 1,000배로 희석하여 엽면시비 하거나 발병시에는 600배로 살포한다.
그리고 토양관주시에는 1000배로 희석사용한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031-634-7990

Small Garden Project - ①

“ 인공 수조를 이용한 연못 만들기 ”

THE COMPLETE BOOK OF GARDEN PROJECT 중에서 / BETTERWAY BOOKS

가정이나 기타의 소정원(Small Garden)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다양한 조경기법을 외국서적을 인용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인공수조를 이용한 연못조성은 정형화된 연못조성을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유통되는 제품은 유리섬유나 강화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든 고가형과 일반플라스틱으로 만든 저가형으로 나뉜다.

인공수조를 이용한 연못조성은 정형화된 수조를 이용하여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고 단순한 과정을 거쳐 단기간내에 아름다운 인공연못을 설치하는 장점이 있다. 인공수조 연못은 기존의 연못공정(콘크리트방수법, 방수라이너 설치법, 황토나 벤토나이트 이용법)에 비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방수안정성이 장점이다.

기존의 조성된 연못에서는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못의 수평이 안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나 인공수조연못의 경우 시공이 간단하여 일반인들도 전문시공자의 도움없이 재료상에서 자재를 구입해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조의 깊이가 30cm내외로 수생식물의 특성상 식물소재의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다음은 인공수조를 이용한 연못조성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한다.

1. 터파기

인공수조를 연못조성예정지에 거치시킨후 형상대로 선을 긋는다. 이선을 따라 1m간격으로 나무 말뚝을 박고 줄을 연결해 터파기시 인공수조의 형틀을 유지시킨다. 통상 지반의 깊이는 수조 깊이 보다 5cm이상 파둔다.

터파기가 완료되면 돌과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고운 흙이나 모래로 바닥을 평평하게 깔아둔다.

2. 인공수조 설치

안착전 바닥은 수평이 맞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수평이된 상태에서 인공수조를 안착 시킨다.

이후 물을 인공수조에 10cm가량 채우고 지반과 인공수조 사이에 고운 흙이나 모래를 10cm정도 흙다짐으로 채운다.

이러한 반복과정으로 인공수조의 물을 채우면 설치작업은 완료된다.

3. 식물채우기

통상 인공수조에는 중심부와 바깥쪽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중심부와 바깥쪽을 각기 다른 식물로 식재하는데 바깥쪽의 경우 아이리스류의 식물이나 무늬석창포 등의 수변식물을 식재하고 중심부쪽은 수련 또는 부레옥잠 등의 부유식물을 이용하면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번역/부장 김윤택)

취미로 기르는 우리 야생화 – ①

언제나 정겨운 마음의 야생화 할미꽃

할미꽃은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마음의 야생화가 아닐까? 아름다운 복수초, 금낭화는 몰라도 할미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 야생화이며 고향의 식물이다.

그러나 요즘은 할미꽃도 잘 볼 수가 없다. 개발과 무분별한 제초제의 이용, 그리고 산림의 울창해짐과 약으로 효과가 좋다고 하여 훼손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른 봄 양지바른 산소를 찾거나 야산의 풀밭에서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는 꽃이다.

할미꽃은 미나리아재비과로 이른봄 매우 일찍 개화하여 정겹고, 가슴 아픈 전설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물이다.

할미꽃은 3~4월에 꽃을 피우고 5~6월에 열매를 달려 보내는 식물이다. 할미꽃은 종자에 의한 번식이 잘되고 재배하는 재미도 좋으니 혹 식목일이나 청명 등 봄에 산으로 들로 나가 할미꽃을 보더라도 절대 뿌리째 통째로 뽑지 말고 종자를 채취하여 길러보기를 권한다.

할미꽃은 뿌리가 굵은 직근성의 야생화이므로 뿌리가 중간에서 끊기게 되고 옮겨도 잘부패하여 재배가 어려우므로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해보길 권한다.

할미꽃의 열매는 익으면 백발의 노인처럼 열매의 수염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 종자를 수집하는 적기는 아직 하얗게 되기전 열매가 노랗게 되는 시기가 가장 적기이며 하얗게 피어도 발아는 잘된다.

열매를 따서 곧바로 뿌리는 것이 좋은데 기위로 수염을 자르고(그림1) 모판에 뿌리되 흙을 거의 덮지 않는 것이 좋다.(그림2)

그리고 뿌리고 남은 종자는 마르지 않게 비닐봉지에 밀봉 냉동실에 보관하여 필요시기에 조금씩 꺼내어 사용한다. 할미꽃종자의 발아시 주의점은 반드시 종자를 말리지 말아야한다. 만약 말리게 되면 발아에 매우 어려움이 많고 처리를 하지않으면 발아를 시키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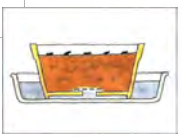
이렇게 뿌리고 나면 약 7~10일정도면 싹이 트며 할미꽃은 직근성의 야생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야생화보다 빨리 화분으로 옮겨 재배하는 것이 좋은데(그림3) 화분은 낮은 것보다 깊은 화분이 좋고 배양토는 퇴비를 충분히 한 마사토를 이용하거나 고운 난석을 이용하면 좋다.(그림4)

할미꽃은 강한 햇빛을 좋아하고 다음해 이른 봄에 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과 관리로 뿌리의 두께가 가을 휴면에 들기 전 최소한 볼펜두께이상으로 뿌리가 굵어야 한다. 만약 뿌리가 이 이하로 작으면 꽃을 피우지 못으므로 주의한다.

화분도 통기성이 좋은 토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첫해의 경우 정식하기 전 충분한 퇴비를 넣고 이듬해 부터는 열매를 날리고 나면 잎을 남기고 꽃대를 자르고 양질의 퇴비를 주는 것이 좋다.

최근엔 노랑, 흰색, 보라, 빨강의 할미꽃까지 다양하게 선보여 아주 좋은 분화용소재로서 그 가치를 키워가고 있다.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그리고 2년에 1회로 가을 찬바람이 불면 분갈이를 해주는데 이때 뿌리에 상처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

토종허브를 찾아서 연재 ①

[허브]의 이용은 동양의 약초가 그 원조

우리는 허브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우리에게 허브는 향기식물이나 혹은 유럽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식물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타임은 우리의 백리향을 말하고 박하는 민트라 말하며 인삼을 파낙스로 말한다.

그럼 허브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식물의 꽃과 종자, 줄기, 잎, 뿌리 등을 약이나 향신료 등으로 사용하는 식물을 총칭하는 말로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 허바(Herba)가 어원이다.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써오다가 BC 4세기경 그리스 학자인 테오프라스토스가 식물을 교목, 관목, 초본 등으로 나누면서 처음으로 허브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예로부터 진통, 진정 등의 치료뿐만 아니라 방부나 살충을 위한 약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토된 점토판과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남겨진 기록, 잉카 유적지의 향료와 훈연 흔적이 그 증거이다.

대표적인 가을야생화이면서 잎의 향기가 있는 산국 또한 토종허브로 볼 수 있다.

4세기경 중부 유럽은 수렵과 목축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게르만 정복 이후 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의 허브가 유럽으로 퍼져갔다. 중세의 중부 유럽에는 채소라는 개념 대신 극소수의 식용식물만 있었던 탓에 치커리는 말라리아나 간장병을 고치는 약초로 쓰였고, 로즈메리는 악귀를 물리치는 신성한 식물로 여겨졌다. 15세기말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이후 에스파냐 원정대가 멕시코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인디언들의 허브 재배술이 유럽에 전해졌고, 중세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약용식물이나 과수류와 함께 허브도 재배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허브 관련 역사서로서 12세기경의 식물지 《허벌 Herbal》과 존 제러드가 지은 《식물의 이야기 The Herbal of General History of Plants》(1579)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자료이전의 기원전 3000년전의 신농씨가 저술했다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은 현존하는 세계최초의 의학, 농학서적으로 허브의 이용은 동양의 약초의 이용에서 시작된것이다.

섬백리향 – 잎의 향이 매우 좋고 타임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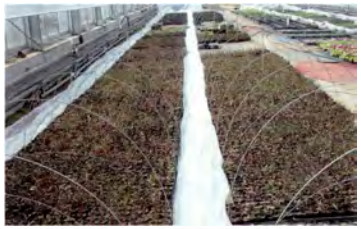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서양과 달리 농경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약초 의에 미나리, 쑥갓, 마늘, 파, 생강, 고추 등의 향채소와 창포, 쑥, 익모초, 결명자 등이 예로부터 허브로 쓰여왔다.

꿀풀과, 지치과, 국화과, 미나리과, 백합과 등 전세계에 약 2,500여 종이 자생하며, 대체로 줄기나 꽃 등이 작아 종족 번식을 위해 멀리서도 향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방향성 물질을 갖고 있다. 생육이 매우 강하여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지만 통풍과 보온성 및 배수성이 좋고 유기질이 많으며 햇빛이 충분한 양지바른 토양에서 잘 자란다. 향은 꽃이 필 때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때 채취하여 냉장보관하거나 응달에서 말려 밀폐용기에 보관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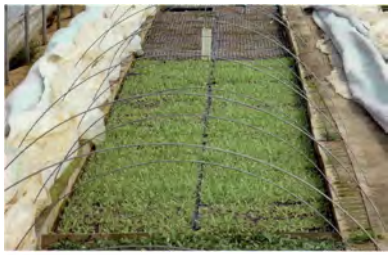
지상 중계

이천연구소– 1만3천평의 생산 • 연구기지

이제 완연한 봄이고 일년 중 가장 바쁜 철이 되었다.
겨울동안에 불어난 뱃살도 이 시기가 되면 겨추장스럽다.
우리꽃이 올해를 기점으로 시장에서 완전한 최고의 자리를 굳힐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5000평 규모의 부산.경남지사를 설립하였고 3000평 규모의 광주.전남지사를 재정비 하였으며 국내 원예산업의 본거지인 과천 화훼단지 주변에 서울지사격인 고급정원 자재센타 Best Garden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체인망을 확립했다. 또 조경식재면허업체인 (주)Wellbeing life를 설립하여 우리꽃에서 수행하던 식재전문팀들을 확대 개편하여 숙근지피식물의 전문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까지 전문가 그룹으로의 그 능력을 배가시켰다.
회사체계 확대에 발맞추어 우리 이천연구소도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인력의 충원과 그리고 지사로의 재배치를 단행하였으며 조경도 한층 새롭게 바꾸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조경용숙근지피식물의 생태와 형태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고 조경인 전반에 새로운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는 필드대회의 준비는 아마도 올해 국내 조경시장에서 숙근지피식물의 올바른 이용을 강조하는 신선한 충격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한다.
필드대회란 신품종 등을 각 품종의 특성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확인할수 있게 모든 품종을 가장 적기에 보여주는 쇼의 장이고 그 회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또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여러 개발품종들이 품종보호출원이 끝나게 되면 육성회사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될 것이다.
올해는 꽃샘추위가 평년보다 늦게까지 지속되어 아직도 밤낮으로 영하권에 머무는 날이 많아 이제 할미꽃이 겨우 이 딸려 유리온실도 지중난방시스템을 설치 생산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이천연구소의 생산보유 품목은 약 1000여종이 넘는다. 이를 세밀히 분류하고 관리하기란 일반적인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관심과 노력이 투여 된다.



▲ 봄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겨울동안에 유리온실에서 키워낸 기우라



숙근왜성천인국 트레이 묘종

▲ 05 워크샵 가평 명지산 정상에서

고개를 내밀려고 한다.
이른봄에 피는 매발톱, 할미꽃, 숙근양귀비 등에는 퇴비를 주어 꽃대를 튼튼히 올리게 하고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고급품종들을 특성에 맞게 증식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겨우내내 난방에 의해 증식된 숙근코스모스와 가우라 그리고 눈붉은찔레, 잔디패랭이, 왕상록패랭이 등은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공급

■ 부산,경남지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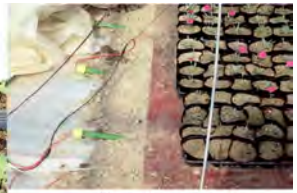
영남권의 안정된 소재공급과 신속한 업무처리 및 서비스를 확대하기위해
창원시 대산면에 부산.경남지사를 2005년도에 설립하였다.
본사 박규영이사가 지사장으로 임명되어 김현철 차장과 지수진 주임이 발령을 받아
이제는 준비가 거의 마무리에 이르러 3월말부터면 생산과 아울러 본격적인 업무가 시행될 것이다.
T.055-253-3760 F.055-253-3761

■ 광주,전남지사 ■

2002년부터 운영되어왔던 광주,전남지사를 올해에는 현재의 박지수 지사장을
축으로 하여 재정비,개편하여 거래선과의 더욱더 유익한 정보 및 서비스제공을 확대하고
생산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요구되어지는 억새, 갈대, 수크령 등의
대량생산을 통해 계속적인 안정된 공급을 할 예정이다.
T.062-941-0386 F.062-941-0387

현재 처음의 계획보다는 준비에 차질이 있어 5월에 최초의 필드대회를 성대하게 치르려 했는데 벌써 연일 바쁜 나날들이 진행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완료하게 될것이다.
사실 필드대회란 가장 바쁘지 않는 시기에 비수기에 치뤄지는 계정상인 것은 당연한데 하루라도 더 빨리 오픈하고 픈 마음에 급하기만 하다.
우선 3월에만 공식현장이 많이 잡혀있다. 중부, 춘천, 파인힐스, 뉴스프링빌 C.C 그리고 용인시의 우리랜드 조경공사까지 그리고 서울숲과 청계천현장의 지피식물납품까지 겹쳐 벌써부터 포장작업과 출장으로 가족들 서로의 얼굴보기가 힘들 지경이다.
경남지사의 하우스비닐도 씌워야 하고 서울지사의 매장오픈식도 해야 하는 우리가족 전체가 바쁘다.
새롭게 출발하는 경남지사, 서울지사, 전남지사 그리고 (주)웰빙라이프까지 올한해가 최고의 해가 되기를 빌어본다.
우리꽃의 새로운 가족도 많이 늘었는데 건설회사와 세무사사무장출신인 이용수부장님, 그리고 서울종묘 무역부 출신의 서울지사 지사장인 김윤택 부장님, 또 3개월의 연수기간을 완료하고 정식 직원이 된 지수진 주임, 승진한 서준혁 부장, 김현철 차장까지 그리고 각 현장으로 발령이 난 여러 가족과 전 임직원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본다.
그리고 우리들 고객들의 무재해, 가정의 화목과 부자되기를 기원한다.

필드대회를 위한 전시포장 작업



지중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유리온실

새순을 내밀고 있는 무늬종 후록스 – 실버민

■ Best Garden (서울지사) ■

서울지사격인 고급정원 자재센타 Best Garden은 그동안 국내시장환경과
선진국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식물부터 자재에 이르기까지 새롭고 다양한
고급 조경용소재를 총망라한 전시판매장으로 선보일것이다. 김윤택 부장이 지사장으로 임명되어
과천시 갈현동에 마련된 매장은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4월초면 개장될 것이다.
여태까지 보아왔던것과는 다른 종합 전시판매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이다.
T.02-5020-221 F.02-5020-231

우리꽃이 녹화용 부자재를 판매중입니다.

우리꽃은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의 확대 적용에 발맞추어
녹화용 부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차로 녹화용 법면 부자재인 코아네트, 색소, 앙카핀 등 부자재를 저렴
하고 안정되게 판매하고 있어 고객들의 원포인트 구매를 돕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규격목단 대량판매(공사용)

우리꽃이 우량의 공사용 규격목단을 대량 판매합니다.

판매규격	키 1m x 1-3지(3년생), 분작업
판매단위	1000본이상
판매가격	3,500원, 현금판매

가식용, 봄 판매용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많은 주문바랍니다

"금강애기기린초"

아름다운 매트형의 새로운 세덤

- 섬기린초와 애기기린초를 혼합한 듯한 특성
- 조밀한 매트를 이루는 초형으로 빠른 지피력
- 아름다운 노란꽃과 종자 꼬투리

이제 세덤은 금강애기기린초로 —

잔디 연작지 최고의 토양개선효과!

| 그린랜드 |

티와 그린의 연작장해 및
토양개선효과 최고

특성
① 암석에서 추출한 천연미네랄 제품으로 친환경제품이다.
② 오랜기간 연작이 진행된 티잉그라운드와 그린의 토양염류집적을 해소하여 연작장해를 해소한다.
③ 물입자를 1/20정도로 분해하여 탁월한 토양개선효과가 있다.
④ 전기전도도를 이용한 종합미네랄 제품이다.
⑤ 악해를 방지하고 냉해와 고온장해를 방지한다.

사용법
1,000배로 희석하여 엽면시비하고 단용으로 사용한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031-634-7990

특집 세계의 대표적 정원 학생 프로그램 – ① 롱우드 가든(longwoodgardens)

임 준 택

임준택은..
7년생
경희호텔 경영대학 호텔경영 졸업
한국 관광공사 교육원 영어 통역 안내원과정 수료
국일 여행사모두투어 항공 기획팀/4년 근무
캐나다 나이아가라 칼리지 졸업
Niagara Parks Botanical Gardens 2002
Longwood Gardens 2003-3004
Shalom2u@hanmail.net

앞으로 3회에 거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 정원의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호에는 미국의 롱우드 가든의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롱우드 가든(longwoodgardens.org)은 2006년이면 100주년을 맞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디스플레이 정원입니다. 식물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기존 식물원(Botanical Gardens)과는 다르게 이 정원은 목적이 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롱우드의 전통에 잘 어울어지게 전시해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구, 보존 기능이 없는것이 아니며 그 주된 목적이 디스플레이에 있기 때문에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정직원 정원사는 40명 밖에 되지 않지만(40-50년대만 해도 200여명의 정원사가 있었지만, 장비의 발달과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전략으로 많이 줄었다 그 40명을 도와줄 인력들이 있는데, 인턴하는 학생및 Professional Gardener(일명 PG)가 40여명 되며, 자원 봉사자가 300명정도 된다.

학생들은 크게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할수 있다.

1) Professional Gardener 코스 – 2년제 디플로마 과정으로 미국인만 지원할 수 있다. 일주일에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3일간 7시간씩 현장실습을 하고 목-금 이틀동안은 교실수업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사내 강사와 외부 강사로 이루어 지는데, 외부강사들도 대부분 롱우드가든의 평생 교육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방학없이(겨울여말, 연시 2주 제외) 2년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전액 무료이며, 가든에서 제공하는 주택과 실비(시간당 6불 50전)를 받게 된다. 수업중일지라도 노동시간으로 분류되어 시 급료를 받게되어,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수가 있다. 학생들의 수는 16명으로 제한하며 2년에 한번씩 선발을 한다. 현장 실습은 16개 부서를 한달씩 돌아가면서 하기때문에 지루하거나 하지 않고 여러 부서의 일을 배울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면 인사부서의 일이나 혹은 전기 배선등의 일도 배울수 있다. 학교 학습은 알차게 진행되며 가든 운영에 필요한 실용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데, 어느 명문대학 못지 않게 요구가 많기로 유명한데 학생들은 숙제하느라 매주 시험치르느라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약 2주에 한번 정도는 Field Trip을 떠나게 되는데, 롱우드 가든 근교를 가거나 멀게는 뉴욕의 식물원이나 위싱턴으로 당일 여행을 떠나고, 여름에 2주정도 영국이나 스페인 등 해외로 견학을 가기도 하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국제적인 친분도 쌓고, 식물원을 탐방한다.

2) Longwood Graduate Program – 델라웨어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대학원 과정 프로그램은 식물원의 MBA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한해에 5-6명정도 선발을 하며 수업료는 전액 무료이며, 약간의 품위 유지비(18,000불/1년)가 지급이 되며, 앞으로 기호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며, 델라웨어 대학에서 교실강의를 주로 듣고 가든에서 해당 부서장들과 함께 식물원 운영 전반에 거쳐서 배우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식물원 업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명함이나 명찰에 이곳 졸업생이라는것을 표기하기도 한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하고, 지원서 및 이력서를 잘 작성해야 하며, 2일간에 걸친 집단 합숙 인터뷰를 잘 통과해야 한다.

사설 조경회사에 근무하기 보다는 식물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많이 인정하며, 리더십의 유무를 많이 반영한다. 이 프로그램 출신들이 현재 미국의 식물원 수목원 업계의 수장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배출되리라 예상이 된다.

3) College Internship –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과정의 인턴십으로 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며 대학생 및 전문지식을 가진 일반인도 지원을 할수 있다. 잔디관리면 잔디 관리분야 한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실습을 하는곳이며 가끔 자리가 나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부서로 옮길수 있다. 작업 시간은 일주일에 5일로 하루 7시간씩 일을 하며 약 2주에 한번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 분야의 모습들을 볼수가 있다. 시간당 급여(6불 50전)를 받고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와 주방시설, 케이블 텔레비전 및 전화가 달린 3-4명이 이용할수 있는 주택을 사용할수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Plant Walk라고 하여 정직원 가드너가 인솔하여 롱우드 근처의 좋은 하우스 가든을 중심으로 탐방을 하여 집주인들이 직접 안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참가 여부는 학생 자율에 맡긴다. 저녁에는 평생 교육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강할수 있는데 보통 강의료의 25%만 내면 선착순으로 청강할수 있다.

4) International Gardener Training Program – 이 프로그램은 3월과 9월에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2명씩 선발을 하게 되는데, 기간은 1년이며, 8개월간 롱우드에서 짠 프로그램대로 1달씩 각 부서에서 현장 실습 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동안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훈련을 받을수 있다. 기타 조건은 위의 college internship과 대동소이 하나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 국제학생들의 장점중 하나이며, 미국 각지에서 오는 우수한 학생들 및 직원들과의 자연스런 네트워킹및 전문지식향상 및 영어능력향상 등 유익한 면들이 많은데, 특히 주택이 제공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 미국 식물원에서 하는 인턴십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김군소씨와 천리포의 정문영 이사님, 식물원 수목원 협회 송기훈 사무국장님, 천리포 수목원, 영국 위슬리가든을 거쳐 지금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임운채씨, 필라델피아에 있는 박수진씨와 현재 롱우드에 있는 권민형씨와 본인 임준택 모두 7명이다. 이 프로그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점은 필수이고, 지원서에 일력하는 많은 질문들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혜롭게 질문에 응해야 하며 인터뷰는 없다. 운전면허증도 필수이며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원하는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는것도 롱우드에서 권하는 합격의 방법중 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금액에 상관없이 구독/후원을 하시려면
농협 : 235100-56-071562
예금주 :박공영(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전화 : (031)634-7990 팩스 : (031)634-7991
(현재누적금액 : 73만원)